



# 새로운 출발, 다시 쓰는 군포예총의 역사

##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생태계 조성

군포예총 25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8대 강신웅 회장은 이미 군포예총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이력이 있다. 군포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의 대중화를 통해 군포시민들이 전문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역사 속에 5대 예총회장으로서의 큰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태을예술제를 계승한 군포철쭉축제 및 수리수리마법축제, 찾아가는 예술활동, 수리음악콩쿠르, 시민가요제, <군포예술> 창간 등 예총회장으로 재임 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뒤를 이은 6, 7대 강희진 회장의 군포예총 역할 확장과 굳건한 자리매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 더욱 비상해야 할 군포예총을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선 것이다.

강신웅 회장은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가와 향유하는 시민들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전시와 공연을 통해 구현해 내는 것이 선과제라고 말한다. 또한 전문예술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야 할 사명감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술가의 자질, 아날로그적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술 홍보, 예술적 재능의 사회적 나눔 및 생활에 예술인들과의 협력과 상생 등 군포예총 예술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공약으로 펼쳐냈다.

## 펜데믹 시대, 예술인의 이름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멈춰서기까지 문화예술은 관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상호교감과 호흡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방하는 코로나 방역은 사람과의 만남을 경계하며 대면활동을 모두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문화예술 분야는 예정되었던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예술인 개개인으로도 보더라도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들을 선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강신웅 회장의 출발 역시 코로나 상황의 여파로 쉽지 않았다. 상반기에는 거의 모든 행사나 공연이 연기되어 혼란스러웠으며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무관객 언택트 공연과 유튜브 동영상 녹화 공연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어려운 시국이라 그나마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군포예총의 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한 강신웅 회장은 예전처럼 군포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한편, 펜데믹 시대에 맞는 예술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코로나로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공연과 전시 등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오히려 자료 축적이 더 많이 되는 결과를 가져 왔지요. 위기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카이빙 작업에 박차를 가해 우리 군포예총 25년의 역사를 정리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8대 군포예총 회장으로 출마하며 내세웠던 공약 중 그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있다. 1996년 음악, 문인, 무용 3개 지부로 창립한 군포예총이 현재 8개 지부 400여 명의 지역전문예술인 단체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군포예총 25년사를 발간하는 일이다. 평소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강신웅 회장은 <군포예술> 창간호로 2008년 Human&art를 발간하여 ‘군포예총이 걸어온 길’이라는 특집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군포예총 25년사에는 그동안 예총 8개 지부의 역사와 현황 뿐만 아니라 군포예술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망도 담길 예정이다.

## 음악은 나의 운명,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여

강신웅 회장은 학교와 예술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공연을 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늘 노력해 왔다. 군포에 철쭉이 피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철쭉 꽃비가 내리면’을 작사·작곡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풍성하게 했고 그 뒤로도 ‘수리성당길’, ‘우리동네 수리산’, ‘반월호수 그곳에서’, ‘철쭉꽃잎 우체통’을 만들어 군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에 담았다. 군포에 대한 애정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결과물로 이어진 것이다.

형이 쓰던 기타를 잡고 ‘긴 머리, 짧은 치마’로 시작되는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를 치기 시작했던 중학교 1학년 까까머리 소년 강태우(아명). 그가 그룹 “벗님들”



## 인터뷰 | I. 8대 예총회장\_강신웅

의 기타리스트가 되고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택한 길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저는 살면서 기타 치고 곡을 쓸 때가 가장 좋습니다.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노래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늘 고민하지요.”

기타를 연주하고 창작활동을 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지역예술인들을 대변하는 예총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는 군포에 대한 노래, 군포의 정서가 담긴 노래를 계속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펴기도 했다.

강신웅 회장은 한양대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지만 노래가 좋아 대중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예술학을 했고 음악예술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이태리 가스파레 스포니티 공립음악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음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세한대, 목포과학대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에게 요즘 불고 있는 트롯열풍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음악의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양한 음악 장르가 존재해야 하고 그래야 다른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설 자리가 있고 청중의 입장에서 여러 색깔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있어 좋겠지요. 미디어와 자본을 가진 대형기획사들이 음악 산업을 움직이는데 그들이 음악에 대한 철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슈퍼스타K, 보이즈 코리아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행할 때 각 대학마다 실용음악과가 생겨 노래하는 학생들이 대거 배출됐지만 정작 그들이 설 무대는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무책임하게 가수들을 양산해 놓기만 하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중음악도 학문적 영역이 반드시 있고 각 장르마다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강신웅 회장은 군포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시민문학>에 외부논단 ‘대중음악의 뿌리 Jazz 이야기’를 게재하기도 했다. 재즈의 발생과 발전 과정 및 정서적 특성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글로 재즈음악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도 그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강신웅 회장은 인터뷰 중 음악인으로서의 자신





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 군포예총 공연단체 연습실 및 각 지부의 공간을 마련하다

강신웅 회장의 또 하나의 소망은 군포예총 회원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8대 예총회장으로서의 약속이기도 한 이 사항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문화예술회관 4층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여 각 지부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예총 사무실 옆 무용연습실이었던 곳 역시 전면 개조하여 공연 지부의 연습실로 쓰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연지부에서는 연습공간이 없어 사설 학원이나 개인 연습실을 빌려 공연 준비를 하곤 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땀을 흘려가며 대사를 외우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군포예총 예술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강신웅 회장이 말하는 군포예총의 줄은 점은 타 장르 간 예술인들의 화합이 잘 된다는 것이다. 17회로 이어지는 군포예인예술제에서 8개 지부가 힘을 합하여 공연과 전시로 하나가 되며 무용과 국악의 아트콜라보 공연 '이어져라 뭉땅', '쓰고 그리고 춤인'이라는 주제로 콜라보 전시를 펼친 문인, 미술, 사진협회의 협업프로젝트 등 군포예총 예술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신웅 예총회장은 곧 선보일 새로운 공간이 군포예총 회원들의 단합을 이루게 할 것이며 곧 코로나19가 사라져 대면 공연이 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열심히 견디며 성숙해지는 제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술은 끊임없이, 더욱 새롭게 창조되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지금 군포예총은 2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 2의 도약기를 꿈꾸고 있다. 군포예총 예술인들의 창조 정신과 협력의 힘이 살아 있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대담 및 글 오은희



# 거침없는 8년의 행보, 화폭으로 돌아간 강희진 작가

2020년 군포예술상 수상자는 전 예총회장 강희진 화가이다. 2대에 걸쳐 8년이라는 긴 시간 예총회장을 맡아 고군분투한 후 이제는 온전히 그림으로 돌아간 강희진 작가를 만났다. 예술상 수상 축하는 간단하게 나누고 근황부터 물었다.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원 없이 읽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작품활동도 열심히 하고, 일 하는 딸을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 손주를 돌봐 주기도 합니다.”

여유가 묻어나는 표정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있음이 느껴졌다. 더불어 밝은 표정과 슬림해진 몸이 재임 중 보아왔던 그의 모습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 읽고 싶었던 책을 원 없이 읽다

지인들이 추천해준 책을 이것저것 읽어 봤는데 아무래도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게 되더군요. 10권으로 된 유홍준의 『문화유산답사기』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첫권을 읽는데 마지막권까지 쉼표 없이 달려갈 거라는 감이 왔어요. 특히 일본 답사기, 중국 둔황 석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조정래작가의 소설은 거의 다 읽은 듯해요. 『아리랑』을 시작으로 『태백산맥』, 『한강』, 『정글만리』까지 쪽 읽어 보니 느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송기숙의 소설 『녹두장군』은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무능함, 명과 청의 갈등,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양반들의 정치적인 암투,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힘든 민초들의 삶이 전이 되는 듯해서 분개하고 마음 아파 하며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어 밤을 새워가며 읽었습니다.

## 2대에 걸쳐 8년 동안 예총회장을 하면서

의무감으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예총회장으로서 8개 지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보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엔 8개 지부장 이하 회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해 낼 수 있었지요. 지부별로 나누어 하던 행사를 통합해서 함께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예인예술제의 경우 지부별로 해 오

던 행사를 전직 예총회장들을 모시고 8개 지부가 함께 했다는 것 등입니다. 예총에 맡기면 잘 할수있다는 신뢰감으로 예총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중 가장 아쉬운 것은 워니워니해도 예술인센터를 꿈꿀 수 있습니다. 400여명의 적지 않은 예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이루지 못 한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술을 예술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뒤를 이은 현 예총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힘을 모아야 가능하지요.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8개 지부의 개별 지부의 안위만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예총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협심하고 양보하고 도와가는 마음으로 뭉쳐져야 30년 넘어서도 굳건한 예총이 됩니다. 그 래야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생기지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소송적인 것보다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재임 기간 중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 오로지 한 길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방 향교에서 붓을 잡고 무릎 꿇고 붓을 잡기 시작해서 중 고등 대학을 지나 지금까지 오로지 그림이라는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한량이신 아버님의 6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김제라는 시골은 창과 국궁, 소리를 하는 예향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화를 그리시는 벽천 나상목어님이 아버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 화실에 가실 때 나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 먹을 갈고 나면 선생님이 오셔서 난을 하나 쳐 주시고, 그 옆에서 신문지를 펼쳐놓고 획을 긋는 일이 그냥 즐았고 재미있었어요. 형제가 5남 1녀인데 형들이 나는 그림 그리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로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형제 사이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려온 셈이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아련한 그의 얼굴은 아버지 손잡고

화실 가는 어린 강희진을 떠올리는 듯 싶었다.

## 그림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머리카락이 희끗한 지금까지 한 길을 걸은 것에 대해 후회한 기억은 없어요. 중학교 가면서 사생대회를 나가면 상도 타고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니 갈등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이리 3개 도시가 비교적 큰 도시였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 특기자로 뽑혀 이리,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선 대학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사생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고상을 받아서 광주학생회관에서 도지사 허련이라는 분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으로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았지요. 전라북도를 빛낸 인물이라는 뜻으로 주는 전북의 별이여! 라는 상을 받은 일, 중학교 때 농협에서 상금으로 받은 30만원이 든 통장,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개체가 되어 그림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려는데 다니던 학교가 교원자격증이 안 나온다고 해서, 교원자격증을 주는 지방 대학으로 옮겨 2년여 동안 더 공부해서 교원자격증을 땀습니다. 대학원은 마흔다섯살쯤 갔어요. 당시 여유가 없어서 대학원은 꿈도 못 꿨었는데 군포로 이사 와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어디로 갈 건가하고 생각하다가 군포에서 시간절약하며 다니려고 4호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가서 겨우 졸업 했어요.

## 형식에 매이고 싶지 않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화를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화선지, 먹, 채색화로 작업했어요. 한국화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먹고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교사가 된다는 것도 요원한 일이었지요. 그때 백화점이나 신문사에 문화센터라는 것이 생겼는데 수채화 강좌를 맡게 되었어요. 덧생과 수채화 강의를 했는데 수채화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은 분야라는 개념 때문에 인기가 있어 강좌를 여러 개로 자꾸 넓히다 보니 지금까지 거의 24년을 쉼 없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수업을 하면서 93년도부터 수채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 수채화에 대한 한계가 느껴졌어요. 현대미술에 장르라는 것을 꼭 나눠야하나 하는 생각에 장르 구분 없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가운데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지요. 학부에서 공부한 것보다 깊게 여러 장르의 미술에 대해 접근해 본 것이 뜻깊었어요. 물론 나의 작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상, 비구상, 구상 이런 것에 구애를 두지 않아요. 형식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대합니다. 형식에 매이면 경직된 그림이 나온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 화면에 던지는 작업

구체적인 대상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내가 느낀 것을 화면에 던지는 작업을 합니다. 몽유도원도 라는 그림을 보며 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뭘까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형상화 시킬까 같은 원가 형상화를 더 시켜보자는 생각에 잡혀있어요. 여행을 가셔도 눈에 띄이는 문양이나 형상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공상이나 미래세계 같은 것을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책으로 미디어로 접해보는 미래는 내가 직접 보거나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고 내 의식이 머무는 곳이 자연입니다. 일생을 통해 내 몸에 새겨진 자연에 대한 것이 익숙해서 편하다는 거지요. 그림을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이 예전의 풍경이나 물건을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그림의 소재로 삼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내 그림에 과거와 현대가 잘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며 계속 시도 중이지요. 작품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단 마무리하고 자고 일어나서,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있으면 부족하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완벽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그림 작업입니다. 항상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았어가 시간이 지나면 아쉬운 맘이 드는 것의 반복이지요. 그게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작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전이라는 대회에서 입선을 한 작품인데 그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작품의 탄생 비화를 얘기하면, 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전라선을 타고 구례역에 새벽에 도착해서 화엄사를 가는데 차가 없어 걸어가다 보니 이슬비가 내렸어요. 수로에 히말라야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슬비를 맞으며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순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스케치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 형상을 넣고 돌아와서 작품을 구성하기 시작 했지요.

화선지에 양초를 죽죽 그으면 양초가 그어진 자리에는 먹물이 안 먹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화선지가 찢어졌어요. 화선지를 두겹게 배접을 해 틀에 싸서 초를 그었더니 종이가 안 찢어지고 초가 그어진 자리에는 먹물이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딱딱해서 비가 날카롭게 떨어져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유로 그어봤어요. 우유도 마르면 스며들지 않는데 약간 스며들며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동



갑인 형수님이 착유기로 모유를 짜내는 걸 보고 남은 모유를 좀 얻어서 그어보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의 거친 이 작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 새로운 시도에 대한 후회

정리정돈이 잘되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틀어 놓고 해요. 작품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모르고 완성해 놓고 며칠 지나면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데 지나면 모자람이 보이지요. 수채화 작업을 하는데 단지 수채화라고 수채화 물감이나 전통적인 수채화는 꼭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립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기존의 관념적인 산수화는 언제 나 그릴 수 있고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최고다 하는 것에 잡혀있어 다른 것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 인생의 멘토

젊은 시절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닮으려 노력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더군요.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세대풍파에 시달려 어느 날 보면 변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에게 대해 실망하게 되지요. 지금은 멘토라기 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마주치는 순간 느낌이 딱 왔을 때 닮고 싶은 사람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군요.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것, 자기 작업을 열심히 하다보면 멘토라기보다는 본보기가

될 수 있지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을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 놓는 일이 가장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굳이 멘토를 두고 닮으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예술가들은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술을 핑계 삼아 일탈을 하면서도 양심에 꺼리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식에 벗어나거나 정도를 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고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말한다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할 수도 있겠지요.

가르치는 일을 24년 정도 하다보니 그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는 미술교본을 한권쯤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1회까지 하고 4~5년 쉬고 있는 개인전도 계속하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바람이 곧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늘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강희진화가의 작품이 우리나라 미술계에 큰 획 하나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대담 및 글 이진옥